

그들과의 만남, 못다한 이야기

 경기일보

정자연 기자



2012년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오원춘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벌써 새해의 절반이 흘렀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벌써?’, ‘그동안 뭘 했지?’와 같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뱉고 만다.

뚜렷한 무언가가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지난 반년, 머릿속을 정리할 겸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벤치 위에 나뭇굴고 있는 반쯤 접힌 신문을 보자 괜히 반가웠다. 휴대전화로, PC로 기사를 보는 게 일상인 요즘, 신문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었다는 자체가 태생이 신문쟁이인 나로서는 꽤 좋은가 보다.

기자로 가슴 뛰는 삶을 꿈꾸며 지내 온 12년, 잠시 스쳤던 여성들과의 만남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동안 만났던 취재원과 인터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분명 남성이었을 텐데, 같은 여성으로 끝림이란 게 있나보다.

**공감과 위로의 시간이 흐른 뒤
시작되는 ‘기자의 시간’**

주니어 기자 시절 만난 여성들은 대부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오원춘의 집 앞 사건현장. 당시 사건 이후 새롭게 꽃길이 조성되고 가로등 조명은 밝아졌으나 인적이 극히 드물어 사건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분 피해자이거나 곤경에 처한 이들이었다. 입사 1년 차 때 만난 여성은 소방관의 아내였다. 2011년 12월, 평택의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다하다 숨진 남편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그의 뱃속엔 이제 막 5개월이 된 아이와 네 살 된 쌍둥이가 있었다.

스물여덟 살의 나이, 수습기자 시절 취재 지시를 받았던 나는 그 곳에서 아무 인터뷰도 하지 못했다. 고인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여성에게 절을 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던 순간 두 손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다. 감히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공감한다고 입을 뗄 수 없었다. 답은 아니지만 때론 인간이 인간으로 아픔의 시간을 함께 건너고 공감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의

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만 빈손이었던 인터뷰. 취재엔 장례식장의 공기와 풍경만 담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취재를 하고 기사화 하는 게 기자의 본분이라면 0점이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분간이 가지 않던 그때 새벽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차창 밖으로 바라봤던 풍경과 기분이 지금도 선하다.

입사 2년 차 때 만난 한 여성은 살인 사건 희생자의 유족이었다. 경찰의 직장 대응, 사건 축소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오원춘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를 수원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사건 발생 한 달, 희생자의 언니는 동생을 잃은 슬픔에 절망의 날을 보냈다. 무관심으로



2011년 평택 침대공장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만 소방장과 한상윤 소방교의 합동묘향소에서 당시 김황식 총리가 조문하고 있는 모습

자신의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이웃과 경찰, 국가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다.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마땅한 문제제기는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도 힘들어만 하지 않았다.

“물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국민들께서,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만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 있었던 같다. 하지만 아직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범죄 피해자 유족이 되어 보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상담 시스템도 너무 부족한 걸 알게 됐다. 끝까지

관심을 부탁한다.”

순간 머리가 멍하고 울렸다. 화젯거리를 위해 인터뷰를 한 목적도 크게 차지했던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했기 때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취재를 한다는 건 단순히 ‘피도 눈물도 없이 인터뷰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기사를 위해, 팩트를 찾기 위해 취재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란 걸 이때 비로소 실감했다.

공감과 위로의 시간이 지난 뒤, 기자의 역할은 비로소 시작된다. 감정의 격동 뒤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를 짚어내고 공론화 하는 것. 그러니 어떤 사안에 감정을 너무 성급히 앞세우지도, 빨리 식혀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기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 실현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지만 두 여성과의 인터뷰는 이런 마땅한 지침을 가슴에 지금까지 새기게 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 삶에 스며든 할머니의 혼잣말

하우스촌에서 만난 배광자 할머니는 20년 간 그 마을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왔다. 당시 일흔 넷의 나이였던 할머니께 일일 손녀가 될 테니 비닐하우스집에서 하루만 뉘게 해 달라 했다. 경제부 기자



과천 꿀벌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취재를 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선 모습. 가로등이 없어 집 주변에 나설 때는 형광등이 필요했다.



과천 꿀벌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던 중 물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옮기고 있는 모습



과천 꿀벌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 당시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던 할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로 매일 집값 상승과 하락, 분양 물량 기사를 접할 때였다.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많을까. LH 자료를 찾았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1만 3704가구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3만109가구, 전국대비 2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거빈곤층을 찾기로 하고 배 할머니에 연락을 했다. 가로 4m, 세로 1.5m 가량의 비닐하우스에서 낫선 이와 함께 묶는 하룻밤. 당시 마주한 비닐하우스 안 풍경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일흔이 넘은 할머니는 쇼크로 장애를 얻은 혼자 동생을 돌보며 2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아왔었다. 두 어쩍 낯짓한 방안의 흰 빨랫줄에 얼

기설기 걸쳐있는 옷들은 마치 할머니의 삶처럼 느껴졌다.

사실 들어간 순간 ‘아차’ 싶었다. 생각보다 꽤 살만해 보였다. ‘기삿감’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들었다. 물, 전기 등 거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집 안에 설치되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엔 차갑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빨랫줄에 널린 옷들엔 살얼음썸은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보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 난 대체 얼마만큼 사람의 삶이 처참해야 그게 진짜 어렵다고, 기사가 된다고 생각할까?’

처음 마주했던 생각과 달리 할머니와 함께 보낸 하룻밤은 결코 편치 않았

다. 화장실은 밖의 공용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고, 연탄가스 중독이 우려돼 12월의 겨울에도 창문의 일부를 열어 놓고 자야 했다. 시간 맞춰 연탄을 갈고, 물을 데워 쓰고, 집의 3분의2 가량의 공간엔 연탄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 집안에서도 패딩을 껴입었다. 비닐하우스인 탓에 늘 불을 조심해야 했다. 그 집에서 마주한 14시간엔 최소한의 생활만이 허락됐다.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배 할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때마침 방에 켜진 텔레비전의 아침 뉴스에는 “신도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한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부푼 꿈을 안고 면접을 본 기

업체에서 ‘인재를 놓쳐서 안타깝다.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뵙겠다’라고 적힌 문자메시지처럼 공허했다. 누군가에게는 한 채도 턱 없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집값 상승과 하락에 울고 웃는 그때. 배 할머니에게 집은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곳이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배 할머니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 여기저기에 수채화처럼 스며들었다.

12년차 기자의 여전한 고민...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주니어 기자 시절 만난 이 여성들은 나와 별다른 관계를 맺지도, 특별한 취재



주민들의 고립과 외로움을 없애고 아이들을 품어내는 동네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벌터온 송진영 대표와 마을 주민들이 놀이터를 개보수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여성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취재원이었다.

를 이어가지도 않았다. 잠시 스쳤을 뿐이지만 이들의 한 마디, 이들과 마주했던 시간은 마음 속 깊이 썩여갔다.

연차가 조금씩 쌓이고 부서를 옮기며 만난 취재원, 출입처 여성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로 자리잡았다. 눈빛만 봐도 너와 나의 수고를 서로 안다는 듯한 표정이다.

“자신의 색깔이 있으면 돼요. 여기자들이 그런 색깔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 관련 기관의 한 대표는 이렇게 늘 말했다. 엄마뻘인 그 여성 대표는

나와 하는 일도, 소속도 달랐다. 하지만 여성 대선배가 이 조직에, 이 사회에 자리 잡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꽤 큰 힘이 됐다. 오랜 세월 바다의 폭풍에 휩쓸리고 수많은 풍파에 이리저리 치이고 깎이다 마침내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게 단단하게 자리잡은 매끄러운 돌덩이 같았다.

굳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역할이 제각각 달라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 빛난 여성들을 참 많이도 만났다. 이웃 간 막힌 벽을 무너뜨리고 맞벌이 가정의 많은 동네의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돌봄공동체를 만들고 동네의 분위기를 바꿔 보려 열정을 다한 지역공동체 ‘벌터온(ON)’의 엄마들, 예술가로서 마



2023년 7월 임기를 만료한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분야는 다르지만 도전과 성실, 식지 않는 열정을 몸소 보여주며 선배 언니 역할을 톡톡히 해준 분이다.

땅히 해야 할 일이란 생각에 제주 4·3 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전시를 꾸준히 개최한 보리아트 작가 등등. 저마다 자신이 구축하고 쌓아온 이야기를 기자로서 함께 들으며 더 나은 미래와 세상을 상상한 시간도 수천시간을 될 터.

이런 저런 인연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벤치 위에 나뒹구는 신문을 다시 봤다. 사람들의 흔적이 아니라 공원의 흙먼지가 내려앉은 신문지가 눈에 들어오면 서 내가 쓴 기사도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닐까 싶어 생각이 다시 많아졌다. 내 기사는 어린 시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히 스크랩 되길, 단 한 명에게라도 변화와 울림을 주길, 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십 년을 훌쩍 넘긴 지금 나는 아직 그에 다다르지 못한 부족함 많은 기자다. 아직도 깎이지 않은 돌처럼 단단하지 못한 나를 채찍질할 때가 많은 나날을 보내지만 현장에서 만났던 인연들은 내 삶에 천천히 스며들어 갈팡질팡하는 나의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아직 달려볼 때라고 격려해 주는 듯 하다.

또 한 번 마음을 굳게 먹는다. 이 거리, 이 동네, 이 도시에서 내가 기자로 세상을 바라보며 찾아내야 할 분들도, 쓸 글도 여전히 많다는 걸 자각하며 말이다. 🍀

경기일보 정자연 기자